

“佛母는 더이상 남성영역 아니예요”

불화강좌 여성들 발길

“불상을 조성하거나 부처님을 그려 모시거나 채화하여 불화로 장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하면 해아릴 수 없는 복을 누리고 불도를 이룬다.” <증일아함경>에 나오는 말이다.

부처님을 그리거나 조각하는 사람을 불모(佛母)라 지칭한다. 어미 모(母)자가 들어가 있지만 그동안 불모는 남자의 영역이었다. 최근 불모(佛母)가 되고자 하는 여성들이 크게 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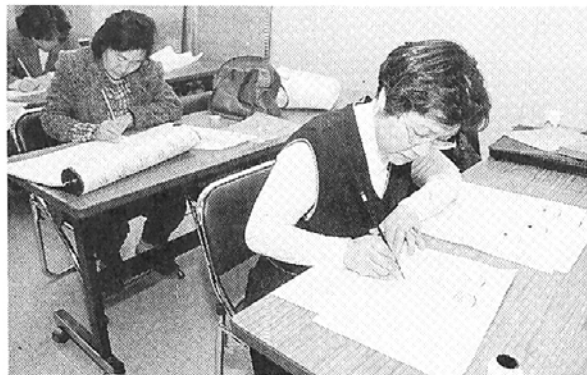
불화그리기는 부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불심교취 방편으로도 선호되고, 취미로 시작하여 불미전이나 전승공예대전 등 전통미술대회에서 입상으로 연결하는 여성들 수도 만만치 않다.

최근 제16회 불미전에서 섬세한 수법으로 그린 ‘아미타화상도’로 금상을 수상한 김성희씨는 불화가 전문호씨(063-952-4241)에게 불화기

법을 사사한 여성불자이다. 고영을 씨(광주여고 교사)도 미술전공자로 광주시 탕화무형문화재 구봉스님에게 불화를 배워 지난 13~19일 프랑스 파리에서 탕화전을 개최, 서양인들에게 탕화의 아름다움을 소개했다.

불화는 단청 인간문화재 만봉스님(02-392-3245)과 준 인간문화재 박정자씨 화실(02-363-1161) 등 불화가들의 개인 화실과 불교문화센터(02-703-0101), 조계사(02-720-1390)의 불화그리기 강좌, 동방불교대(02-763-0229)나 삼화불교대(02-511-2026) 불교미술과 등 여러 곳에 가서 가르치고 있다. 이들 수강생들의 90% 이상이 여성들이다.

신촌 봉원사역 만봉스님화실을 거쳐간 수강생은 수백을 헤아린다.



여성제자 1호가 박정자씨. 박정자씨는 지난 86년 불화로 전승공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지난 88년 탕화부문 준 인간문화재로 지정 받았다. 만봉스님의 여성제자들인 원미희 양선희 최문정씨 등 이수자들도 불미전과 전승공예대전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입상경력이 화려하다.

현재 서울 충정로에서 전통불교교실을 열고 있는 박정자씨는 “불화를 그리다 보면 환희심이 늘 증만해 웬만한 일에는 짜증을 내지 않을 정도로 인내력이 생기고 남을 위하는 자비심·봉사심도 늘어난다”고 말한다. 박씨에게서 배운 여성 불자들이 불화를 그리며 불화기법을 못 구연 등 생활패션에도 도

입하는 모임 ‘마하수로반’까지 만들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18기를 맞은 불교문화센터 불화그리기회원은 전부 여성불자들. 3개월 코스로 열리는 불화반은 한번 입학하면 몇년이고 꾸준히 배우는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문화센터에서 불화 배운지 5년 됐다는 박혜숙씨(56 강북구 수유동)는 “오래전부터 부처님을 그려보는 것이 소원이었다”면서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상을 직접 그리다보니 신심이 더

◇ 불교문화센터 불화그리기 반에서 부처님 상초 연습에 몰두하고 있는 회원들. 회원 전부가 여성불자들이다.

욱 깊어지고 매사가 조심스러워진다”고 말한다.

불교문화센터, 동방불교대, 삼화불교대 등은 매년 수강생들의 작품을 모아 불화전을 열어 그동안의 경진을 보여주는 기회도 갖는다.

전문가들은 초(草) 그리는 데만 몇년이 걸릴 정도로 섬세함과 차분함이 요구되는 불화가 기법상 여성들에게 아주 적합하다고 말한다.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진 요즘 탕화의 미적 가치가 한층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그림을 그리며 창작욕도 채우고 신심도 키워가는 불화그리기 열기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경숙 기자



“불교미술의 앞날 밝다” '97 문화유산의 해 기념 제16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입상작 전시회가 지난 19~25일 공평아트센터에서 열렸다. 19일 개막식에는 대상을 받은 오해균씨를 비롯 입상작들과 석주(조계종 원로) 원주(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등 교계 지도자스님들과 송석구(동국대 총장) 김용현(사예가) 서세욱(한국화가) 김종규(삼성출판박물관장) 한병삼(문화유산의 해 집행위원장) 강운태 내무부장관 김종민 문화부차관 등 각계에서 3백여명이 참석 축하했다. 한편 이날 불미전에는 오느를 극작실내악단 반주로 불미전 주제곡 ‘불미전 옹호계’ (김희경 작곡)가 불려져 눈길을 모았다.

불심시심 <81>

지팡이에 맡긴 걸음

身入白雲處 (신입백운처) 이 몸 흰구름 찾아들면
白雲如我情 (백운여여정) 흰 구름은 나의 정서를 닮다
逍遙自在去 (소요자재거) 자재로이 거니는 걸음 걸음
遠景縱橫行 (원경종횡행) 경치따라 이리저리 가네
尖峰擎天立 (첨봉정천립) 우뚝 솟은 산은 하늘 받쳐 서 있고
長江割地回 (장강갈지회) 긴 강은 땅을 갈라 빙 돌렀다
無心一掃子 (무심일삽지) 무심한 저 스님
飛錫自徘徊 (비석자배회) 지팡이 날려 혼자 오락가락하네

위 시는 송계(松桂: 1685~1766)대사의 시다. 대사의 법명은 나식(懶菴)이고 자는 취화(醉花)이며, 송계는 법호다. 속가는 조선왕조의 후손으로 태종의 둘째아들인 효령대군의 후예이다. 이러한 가계로 보아 대사의 출가는 남다른 대가 있지 않으나 하는 추측을 갖게 한다. 출가 후의 사자관계도 한 스승만 섬기기보다도 당시의 높은 스님을 고루 모셨다. 침공(枕空) 춘파(春坡) 백암(柏庵) 환상(喚醒)을 두루 섬긴 것으로 행장을 밝히고 있다.

대사는 계율에 지나치게 구애 없이 호탕함이 있어 당시에는 시인으로 인식될까 싶었던 것이 보여지기도 이해된다. 위의 시도 ‘산행(山行)’이라 제한 시로 자체로운 대사의 한 면모를 잘 보여준다. 첫 연에서 이미 흰 구름이 나의 감정에 동화되어 오고 있음을 말하였다. 내가 흰 구름을 찾았지만, 내가 흰 구름을 닮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나를 닮아오고 있다. 이러한 자연의 주인이 바로 나인 것이다.

이러한 자세이니 모든 것이 자재로울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발길도 가벼워 경치따라 이리저리 거닌다. 굳이 행선지를 정해 놓은 걸음이 아니라, 경치따라 종횡으로 자유롭다. 종횡이란 가로 세로로 공간적 구애가 없는 표현이다. 이 구애없는 공간을 다음 구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으니, 하늘 떠받치고 있는 산이요, 땅을 가르고 둘러 있는 강물이다.

시적 구성이나 수사도 매우 짜임새가 있다. 상하 좌우가 한 공간으로 흡수되었으니, 하늘 받침이나 땅의 가름도 성공될 수도 하겠다. 이런 구도에도 무심한 하나의 스님으로 휘감히고 있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2회 현대불교문학상 나태주씨 ‘기쁨’ 선정

제2회 현대불교문학상에 증경시인 나태주씨(논산초등학교 교감)의 시 ‘기쁨’이 선정됐다. 오세영 김재홍 송수권 조오현 조동호 씨 등 심사위원들은 “가치관의 전면해체 시대에 직면한 현대인들에게 나태주씨의 시들은 삶의 깊은 체험과 서정을 차온롭게 결합시켜 자신이 오래 그리고자 했던 득의(得意)의 세계를 보여준다”며 “시 ‘기쁨’은 난초잎을 통해 존재의 깊숙한 의미까지 천착해낸 수작”이라 평했다.

지난 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나태주시인은 <대소 아래서> (막달리소묘) <풍일속 작은 길> 등 20여권의 시집과 <절망, 그 검은 꽃송이> 등 3권의 산문집을 펴 냈다.



문화 소식

기쁨
난초화분의 휘어진 이파리 하나가 허공에 몸을 기댄다
허공도 따라서 휘어지면서 난초이파리를 살그머니 보듬어 안는다
그들 사이에 사람인 내가 모르는 잔잔한 기쁨의 강물이 흐른다

이승일씨 ‘호’ 판화전
일체만물은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말 공(空). 증경판화화가 이승일교수(홍익대 미술관화과)가 ‘호’를 주제로 한 판화전을 28일까지 인천 대담갤러리에서 열고 있다.

이번 판화전에는 자연 이미지와 기하학적 패턴의 복합적 구성으로 처리한 이미지작품 20여점이 선보인다. 단색조의 평면과 좌우대칭 구조가 엄격한 틀을 구성하거나 부드러운 색조가 물결처럼 보이는 배경에 부분적인 중간색이 액센트처럼

“불화 진면목 볼 기회”

만봉스님 작품전 4월 3~9일 대구시민회관

우리 시대 최고 금어(金魚)중 한 사람인 만봉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 기능보유자, 봉원사)의 불화전시회가 오는 4월 3일부터 9일까지 대구 시민회관 상설 전시관에서 개최된다.

미수(米壽)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스님은 이번 불화전에서 관세음보살도를 포함 대좌와 후불탱화 나한도 달마도 소품, 단청문양, 도자기화화 등 50여점을 선보인다. 만봉스님 전시는 지방에서는 처음 열리는 것으로 80여년동안 오로지 불화의 단청에 정진하며 구도수행해온 스

님의 원숙하면서도 탈속한 필치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생동감있는 얼굴 표정과 세밀한 의도사로 금어중의 금어라고 평가받는 만봉스님은 90세가 가까운 요즘도 목욕재계와 좌선으로 마음을 모은후 불화에 임한다. 8살배인 지난 1916년 당대 단청의 1인자 김예운스님의 문하가 되어 10년만에 금어자격을 얻은 만봉스님은 금강산 유점사 표훈사, 남한산성, 남대문, 경회루, 보신각 등 주요 사찰과 유적지의 단청과 불화를 그렸으며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의 전시회를 가졌다.

문화유산의 해 달력 발간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는 문화유산의 알기 찾기 가꾸기 사업의 구체적인 일정표가 수록된 문화유산의 해 추진 행사 달력을 발간했다. 이 달력은 본사가 매달 추진하고 있는 ‘불교문화 테마여행’ 등 75개 사업 106건의 행사와 지정문화재 현황표가 들어있다.

석왕사신도 4인 사진전
부천 석왕사 사진동호회 심상희회원 이호연 민선기 이치남 김동성씨 4명이 불교주제의 ‘아늑다라심막삼보리심’ 사진전을 26일까지 대학로 예총회관에서 갖는다. 사찰 관련 사진 32점이 전시된다. (02)744-7874



“마땅히 다음과 같이 알아야 한다. 반야바라밀이 바로 부처님이다. 반야바라밀은 부처님과 다르지 않고 부처님은 반야바라밀과 다르지 않다. 반야바라밀은 모든 부처님을 낳는 어머니고 일체 불법의 지도원리며 나아가 그차체가 부처님이다.”

『대품반야경』 『법점품 제37』

반야와 불교는 둘이 아니다. 불교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든 간에 반야없는 불교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 불교야말로 반야를 실천한 것이고, 반야를 증득하기 위한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불교계에는 많은 종단이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반야사상에 입각한 신행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반야사상 전반을 다루고 있는 저서조차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반야사상을 가장 완벽하게 설하고 있는 『대품반야경』을 중심으로 반야사상에 입각한 신행의 요체를 신앙론·반야론·방편론으로 구성한 이 책은 반야행자들의 신행 지침서가 될 것이다.

대장장 (慧澤堂)
1949년 경남 울산에서 출생, 부산 금강산 법어사에서 독도하였으며,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해운군법서 대위로 전역, 일본 불교대학 대학원에서 『大品般若經』에 있어서의 般若波羅蜜 研究』로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는 조계종 총무원 홍보부장으로서 있으며, 역저서에 『반야의 신의』와 『大品 摩訶般若波羅蜜經』 상·하권이 있다.

般若佛敎
信行論
혜담장상 지음
양장본 · 값 15,000원

삼화불교대학 신입생 추가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 교 학 과	2년	●주간 0명 ●야간 0명	● 모듬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 포교사(타종 승려, 포교사도 가능)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주간 0명 ●통신 0명		
중 국 어 과	2년	●주간 0명 ●야간 0명		
불 교 미 술 과	2년	●주간 0명		
신문방송과(불교포교과)	2년	●주간 0명 ●통신 0명		

2. 학 교 연 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계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 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93. 3 불교미술과·불교포교(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 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남경중의약대학 편입생
95. 11 본교학생 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6.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0명 취득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96. 11 본교학생36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7.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30명 취득(예정)유학교육 수료후
97. 2 제6회 졸업생 배출 예정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불교유아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전 형 방 법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

5. 원서교부 접수 및 문의처

본교: 511-2026-8
조계사앞 삼보원: 732-9904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 511-2026-8, 511-1080)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팩스:511-1080

삼 화 불 교 대 학